

주 제 발 표 2

마을활동으로서 에코에코협동조합 활동의 사례

화 덕 현 | 에코에코협동조합 이사장



Beachcombing HAEUNDAE

기코기코





해운대해수욕장 폐파라솔천으로
가방을 만드는
“에코에코 협동조합”

폐파라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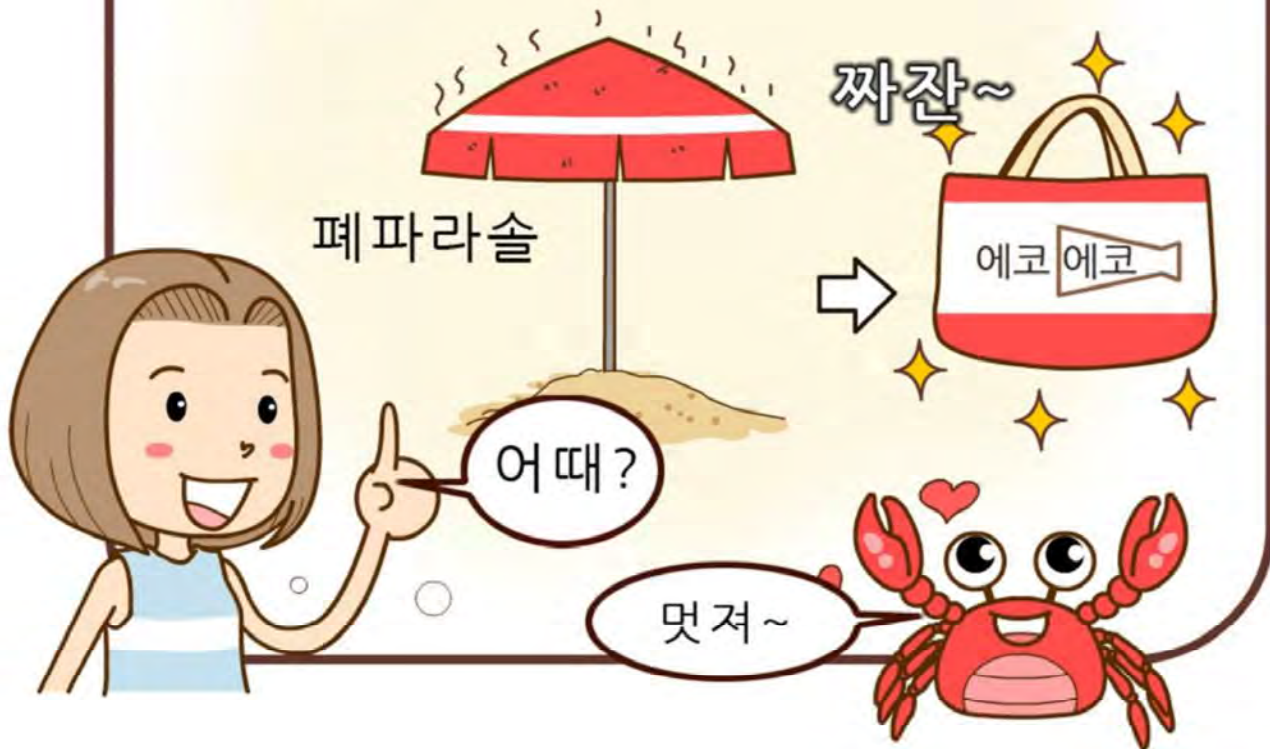


어때?

멋져~



해운대해수욕장 페파라솔천으로
가방을 만드는
“에코에코 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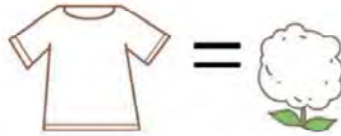




농부를 위한



면티셔츠 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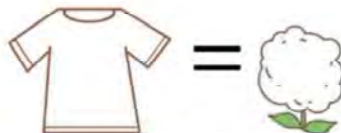
면티셔츠 1장의 목화를
재배하는데 약 1톤의
농업용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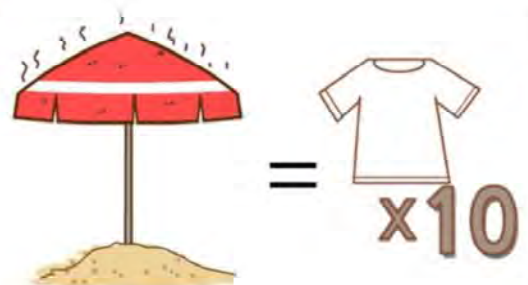
농부를 위한



면티셔츠 목화



면티셔츠 1장의 목화를
재배하는데 약 1톤의
농업용수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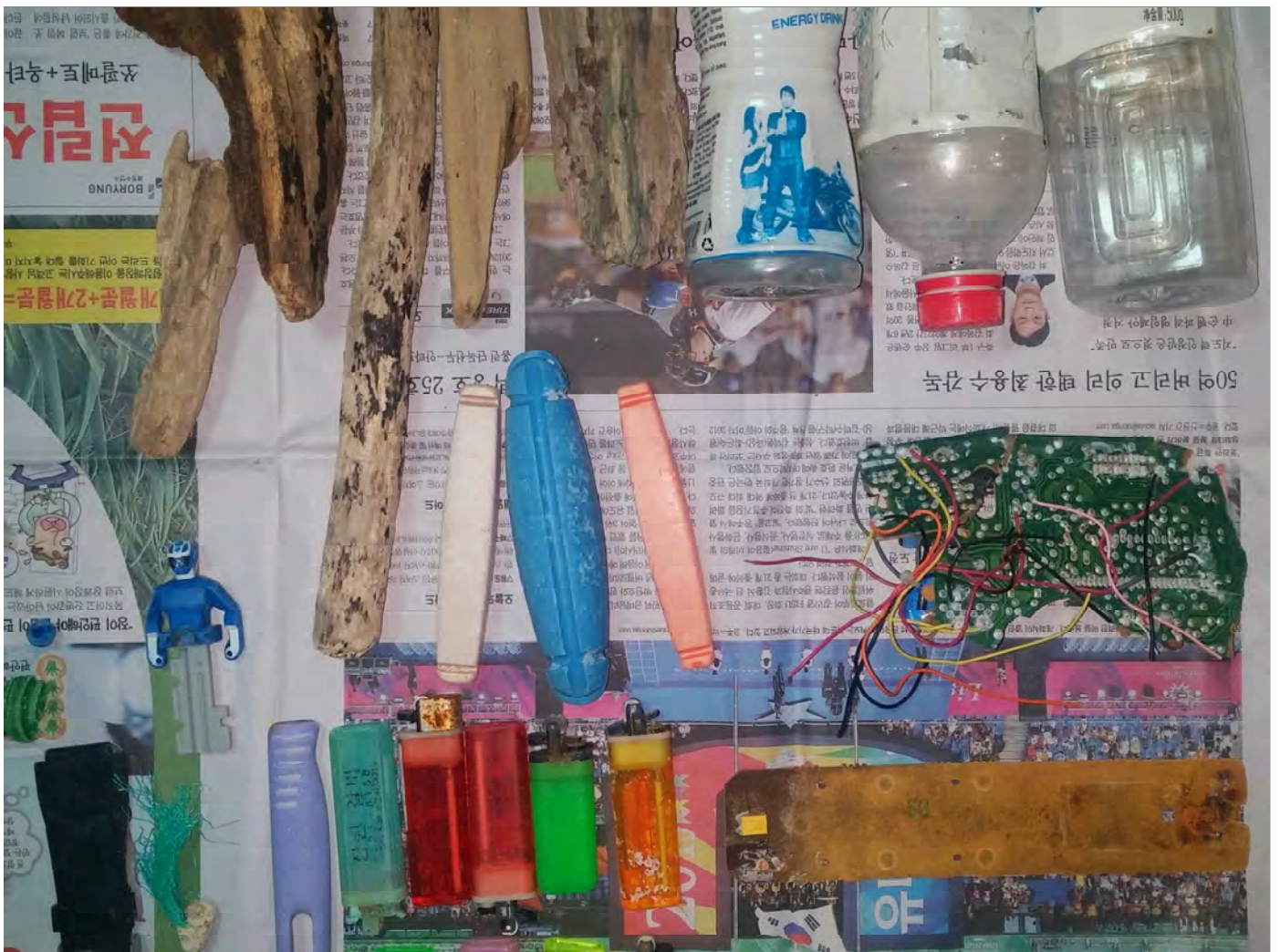
페파라솔천 1장을
재활용하면 10톤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비치코밍 바다상점

















통합검색 | 바다상점

검색

상세검색

분야보기

추천마법사

베스트셀러

새로나온책

새로나올책

출판사랭킹

이벤트

추천도서

본투리드

통합검색
(1)

국내도서
(1)

외국도서
(0)

eBook
(0)

온라인 중고샵
(1)

중고매장
(...)

커피
(0)

음반
(0)

DVD/블루레이
(0)

알라딘
(0)

결과내 검색

☐ 검색어 제외

적용

검색 조건

☒ 제목

☒ 저자

☒ 출판사

☒ ISBN

☐ 태그

☐ 목차

☐ 주제어

적용

분야별 보기

전체 선택

국내도서

"바다상점" 총 1개의 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정확도순 상품명순 판매량순 평점순 리뷰순 출시일순 저가격순 옵션 설정

전체 선택

장바구니 담기



[국내도서] 해운대 바다상점 - 마을기업 에코에코협동조합, 바다에 빠지다 | 만원의 행복 |

화덕현 <지은이> | 해피북미디어 | 2017년 7월

10,000원 → 9,000원 (10%할인), 마일리지 500점 (5% 적립)

★★★★★ (1) | 세일즈포인트 : 170

* 출고예상일 : 지금 주문하면 10월 15일 출고 예상 (출고후 1~2일 이
(서울시 중구 중림동 지역변경)

eBook

알라딘 중고

비치코밍 사회공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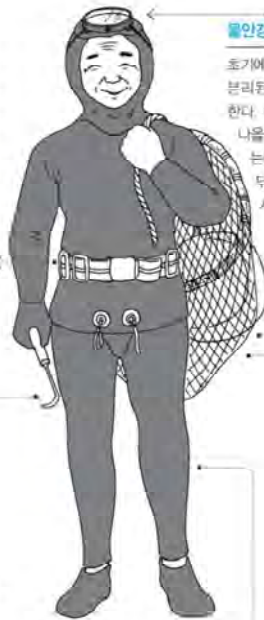






연철

해녀들은 '남(당)이'라고 부른다. 고무옷의 부력 때문에 침수를 하려면 연철을 허리에 차야 한다. 중 무게와 나이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8kg의 납을 친다. 연철이 많은 분들은 허리 힘이 약해 납을 꼭 차야 하는데 너무 무거우면 오히려 올라오기 힘들다는 모순된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닻에 연결된 줄은 생명줄이다.



물안경

초기에는 눈알이 두 개로 분리된 물안경을 썼다고 한다. 해녀들이 물집하러 나올 때 꼭 책을 읽어오는데, 물안경을 써오면 물속에서 읽기가 어렵다.

호미

정사포형은 '호미'이다. 수중에서 소리, 빛, 열, 충격, 압력 등을 잡을 때 사용하는 다용도 여러 도구이다. 호미와 유사하게 생겼으며 해녀가 평상 손에 쥐고 있는 7분 도구이다.

해녀복

해녀들이 고무옷을 입은 지는 40여 년 정도 예전에는 흔했었는데 요즘에는 쉽게 나오고 내구성이 떨어져 1~2년 정도 입는다. 1mm~8mm까지 두께별로 다양하게 나오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벼운 것을 선호하게 된다. 초기에는 모자부분이 너무 꽉 쏘여서 두통이 심해지고 얼굴이 붓기도 했다. 고무옷이 보급되기 전에는 제주해녀들이 물집 할 때 입던 돛속곳에 지고리를 오범해서 만들어 입고, 오자도 직접 만들어 썼다고 한다.

청사포 해녀도감

구분 자연해녀제주도가 아닌 육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해녀

해녀수 정사 등쪽 해녀 42명, 천일 해녀는 아랫마을 13명, 뒷마을 6명

연령대 60~75세

물집시기 6~10월

물집시간 하루 3~4시간

잠수깊이 최장 6~7m

어획물 성게, 소리, 전복, 등명게 등

빗장

바위에 붙어 있는 전복을 떼 때 쓰인다. 머리끝에 동글게 끈을 달아 손을 넣어 빠지지 않게 하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여 전복을 바위에서 떼어낸다.

태와 망사리

정사포 해녀들은 태와 망사리를 '망사리'라고 부른다. 태와 망사리가 붙어 있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받쳐 주는 부속도구이다. 옛날에는 박으로 만들었는데 1990년대부터 스티로폼을 이용해 만들기 시작했다. 큰 망사리와 작은 망사리를 구분하여 큰 망사리에는 성게와 소리, 작은 망사리에는 전복, 해삼을 담는다. 망사리를 엮어 놓은 나무는 해녀들이 직접 구해서 원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고 한다.

호

정사포 해녀들은 '갈고리' 또는 '침갈'이라고 부른다. 망사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쓰는데, 달을 쓰기 전에는 무거운 돌에 줄을 매달아 썼다고 한다.





지속적인 성장가능

매출증가현황



고용현황



비치코밍
과
테트라포드